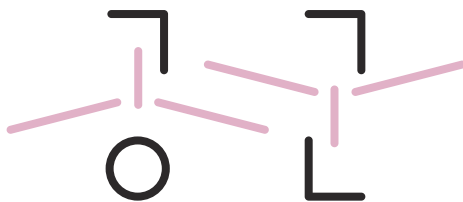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21
02
5 1 2

<http://afzine.co.kr>



Contents

04	명절맞이 특별 인터뷰	보자기 아티스트 이효재를 만나다.
08	기획특집	퇴역한 전투기 엔진으로 만든 제설차량, SE-88을 아시나요?
12		공군인의 인권지킴이 공군인권나래센터
16	특별 기고	평화를 위한 진정한 대비태세의 의미 (배상은 뉴스1 외교안보부 기자)
18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제12화 조병화(趙炳華) 시인 편
24	내 옆의 공군인	제5공중기동비행단 파라업 동아리장, 정보경 상사
30	우리 부대는	제51항공통제비행전대
34	지금 이 순간!	공군 소식 & 참모총장 동정 & 부대 소식



표 지(앞) 공군인의 설맞이 일러스트
 디 자 인 강은정 작가
 표 지(뒤) 자토 일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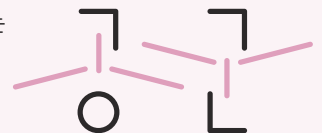
발 행 일 자 2020년 2월 1일(통권 제512호)
 발 행 대한민국 공군
 편 집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이상규
 편 집 감 수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장 중령 김승진
 기 획 · 편 집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미디어콘텐츠과 소령(진) 박란, 대위 최지형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F21010036)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 및 인터뷰는 개인의 견해를 알려드립니다.



- | | | |
|----|---------------|------------------------------|
| 40 | 시인의 책 | 우리는 새벽까지 말이 서성이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
| 42 | 명상을 말하다 | 화 다스리기 |
| 44 | 철학, 군인정신을 말하다 | 데이비드 브룩스의 군인정신 |
| 46 | 트렌드가 보인다 | 쿠바, 사라져가는 아날로그의 추억이 남은 곳 |
-
- | | | |
|----|---------|---|
| 48 | 공군인의 편지 | 아빠, 오늘은 저랑 저녁 먹어요
(제15특수임무비행단 수송대대 일병 김요한) |
| 49 | 책읽는 공군 |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제5공중기동비행단 항공정비전대 일병 강민재) |
| 50 | 생각하는 그림 | 하나의 점 |
| 52 | 기준의 기준 | ‘가족’의 맹목성 |
| 55 | 마음의 소리 | 독자 참여 코너 |





보자기로 싸는 희망의 마음 보자기 아티스트 '이효재'를 만나다

“먼 훗날 통일이 되면 DMZ 철조망을 보자기로 싸보고 싶어요.
모든 것을 감싸고 매듭짓고 풀 수 있는 보자기로요.”

설 명절을 맞이해, 편집실은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기 위해 충북 괴산의 어느 산골마을로 향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복 디자이너이자 보자기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신 이효재 디자이너. 그녀는 한복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동화작가, 방송인 등 다양한 모습으로 자연과 전통, 의식주를 아우르는 문화 전달사 역할을 해왔으며, 2019년부터는 국방부 국민소통전문가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특별히 ‘공군사랑’을 외치게 된 사연부터, 장병들도 따라 하기 쉬운 보자기 포장법, 공군 장병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면에 담아보았다.

충북 괴산의 깊은 산골 마을

이효재 디자이너를 만나기 위해 달려간 충북 괴산의 ‘대한민국 전통 보자기협회’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속리산국립공원에 속하는 아가봉과 옥녀봉 사이의 산골 마을, 운교리가 바로 그 비밀의 장소다. 6·25전쟁도 피해갈 정도로 조용한 곳이었다고 했다.

“서울에서 멀리 않으면서도 자연에 둘러싸인 곳을 찾다가 이곳을 알게 되었죠. 저는 이 마을에 문화를 더하고 있어요. 아무런 문화와 콘텐츠가 없다면 그냥 시골의 작은 오두막에 불과합니다. 제 작업실은 서울에도 있지만, 이 공간에 더 애착을 갖고 있어요. 제 못자리도 이곳에 정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장병들도 이곳에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초대하고 싶어요. 군복 입은 장병들이라면 언제나 대한영입니다.”



이효재 디자이너가 직접 꾸민 돌집



구름 위에 정원이라는 뜻의 운상정. 글씨는 가수 나훈아님의 친필이다.



공군과의 인연, 그리고 군복의 멋

“제가 젊은 시절에, 청주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에 참 많이 다녀왔어요. 지금은 전역한 한 공군 장군의 가족과 사관학교 군중 신부님과 친분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분들이 사관학교에서 영관장교로 근무하고 계셨고요. 부대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군인들을 보면 어찌나 설레던지요.”

또 그의 양아들은 공군병으로 입대하여 헌병 특기로 근무하다 전역했다고 하니, 특별히 ‘공군사랑’이 지극할 수밖에. 뿐만 아니라, 한복 디자이너로서 공·육·해군의 다양한 군인 가족들이 부대 행사 때 입는 한복을 오랫동안 디자인하기도 했다.

“군인은 군복을 입을 때 가장 빛이 나요. 군인이 전투복을 입고 전투에 임하듯이, 저 역시 제가 직접 제작한 이 원피스를 나의 전투복이라 생각하고 입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효재 디자이너는 제복 입은 군인의 멋스러움을 인터뷰 내내 이야기했다. 원칙과 규율에 따르는 절제된 삶, 특히 우측 팔에 단 태극기가 가진 힘을 장병들 스스로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보자기로 싸는 '희망, 나눔'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만큼 보자기를 많이 싸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먼 훗날 통일이 되면 DMZ 철조망을 보자기로 싸보고 싶어요. 모든 것을 감싸고 매듭짓고 풀 수 있는 보자기로요.”

그녀는 나눔의 마음이 담긴 선물을 찢겨 버려지는 종이나 비닐로 포장하는 대신, 다시 쓸 수 있는 보자기를 활용한 원조 보자기 아티스트이다. 원래 한복집을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하는 보자기 포장을 하나의 독립된 예술로 일궈 낸 지 오래다. 특히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1회용 포장지 안쓰기’ 운동을 벌이는 것에 주목해 포장지 대신 ‘보자기 쓰기 운동’을 이끌어 냈다. 단순히 보자기를 쓰자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 보자기를 쓰는 방법을 고안해 책을 내었고,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수많은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런 창의력과 열정 덕분에 그녀의 보자기 아트는 국제적으로 그 명성이 자자하다.

설 명절에는 보자기를 싸서 마음을 전해요

“코로나로 갇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낭만과 로망들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로 거리두기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번 설 명절에도 휴가를 나가지 못하는 장병들이 많다. 비록 직접 만나는 못하지만, 이번 명절에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보자기로 선물을 싸서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장병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보자기 포장법을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정성 들여 포장해서 여자친구에게 보내라며(여심을 녹일 때 유용하다며) 웃으셨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보자기가 없다면 손수건으로도 가능하다.



보자기 포장법



지키는 것을 넘어 멋과 문화가 있어야

“6.25 전쟁 때 한국 군대라면 상상할 수 없겠죠?
보자기로 문화의 힘을 장병들과 나눌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게 놀라워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의 군인이라는 것은 정말 특별합니다. 저는 이런 군인들의 정신과 문화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군인정신이 지금
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중요한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응집하는 힘, 그것이에요.”

이효재 디자이너는 선한 에너지를 온몸으로 발산하는 분
이었다. 함께 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로 느끼
도록 해 주는 힘.

성을 빼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브랜드 ‘효재’ (본받을
효(效) 집 재(齋)) : 본받을 집이라는 뜻의 에너지가 공군
장병들과 독자들에게도 전달되었기를.

소중히 싸주신 보자기를 들고 다시 부대로 복귀했다. AF



직접 보자기로 포장해 주신 공군지 이벤트 선물들

퇴역한 전투기 엔진으로 만든 제설차량, SE-88을 아시나요?



올해 초에는 유독 눈이 많이 내렸다. 비행단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흡사 ‘마징가’를 연상시키는 특수 차량 하나가 어김없이 등장하여 드넓은 활주로의 눈을 치우기 시작한다. 그 주인공은 바로 SE-88 ! 퇴역한 전투기의 엔진을 활용해 만든 공군의 특수 제설장비다. SE-88은 항공기 제트엔진에서 발생하는 400~500℃의 열기로 눈을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제설작전을 수행한다. 이 제설차량을 직접 만들고, 사후관리도 책임지고 있는 군수사령부 제81항공정비창(이하 81창) 특수제작공장 기계공작팀장 손준석 사무관을 만나 SE-88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AF. SE-88 이름에 담긴 뜻이 있나요? 언제 어떻게 제작하기 시작했나요?

SE는 Snow Engine, 88은 1988년에 최초로 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80년대는 우리 공군의 주기종이었던 F-4, F-5의 오랜 사용으로 많은 도태 엔진들이 재고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엔진들이지만, 이를 적절히 수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에 탄생한 것이 바로 SE-88 제설차량입니다. 일반 군용 화물차에 항공기 엔진의 높은 추력을 활용한 증기 발생 라인을 잘 조합하면 넓은 활주로에 제설작업을 단시간 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81창 특수제작공장에서 손준석 사무관이 SE-88 몸체로 쓰일 자동차 유압계통 부품을 점검하고 있다.



특수제작공장에서 SE-88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연결 브라켓 부품을 제작하고 있다.

AF. SE-88은 한국 공군에서만 운용하나요? 군 밖에서 운영되기도 하나요?

SE-88은 한국 공군에서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설작업의 메인 출력을 담당하는 것이 공군 도태 항공기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군 밖 일반 공항에서 운용하는 제설차는 대부분 수입 제설차로 엔진의 성능 자체는 항공기 도태 엔진보다 훨씬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 총 86대의 SE-88이 제작되었고, 현재 공군 기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설차는 대형 25대, 소형 28대 총 53대입니다. 차량 수명은 15년 정도 되는데, 지금은 2000년대 초반에 생산한 차량들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희 81창 특수제작공장 기계공작팀에서는 수요에 맞추어 매년 4~5대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AF. SE-88 수리 및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81창에서는 SE-88을 제작할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군 기지에서 발생하는 제설 차량의 고장에 대비해 제설차 긴급수리전담팀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소모품의 교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품을 제작하여 발송하면 각 기지에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2010년대에 와서는 각 부대별로 수리 및 교체 노하우가 쌓이면서 81창을 통한 수리 작업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AF. 81창 기계공작팀에서는 SE-88 외에 다른 장비들도 제작하나요?

물론입니다. 전시파손항공기수리(ABDR : Aircraft Battle Damage Repair)의 수리키트를 담은 ABDR 트레일러, F-15K 무장을 보조하기 위한 Taurus 스탠드, 최신예 F-35K 무장장착실습을 위한 Mock-up(모형) 장비 등 전력화 당시에 누락되었거나, 수입 대비 자체 제작의 경제성이 높은 장비들을 꾸준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AF. SE-88 제작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도태된 항공기 엔진으로 제설차를 제작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고민과 에피소드가 현재의 완성품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SE-88을 제작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고중량(약 350kg)의 증기 발생라인을 차량과 조립할 때 발생했던 에피소드입니다. 중량이 무겁다 보니 차체에 증기발생 라인을 조립할 때는 크레인으로 고장력벨트를 묶어서 증기 발생라인을 고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벨트이다 보니 완벽한 고정이 힘들어서, 대형 제설차를 제작할 때는 10명 정도가 보조작업자로 붙어서 해야 하는 난해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다 작업자 중 1명이 부착 작업용 고정대를 고안한 후에는 작업 인원도 5명 정도로 줄고, 벨트 흔들림에 의한 안전사고 요인도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던게 기억에 납니다.



81창 특수제작공장 작업장 전경



특수제작공장에서 SE-88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는 증기 배출기구 고정대를 용접하고 있다.



SE-88 차량

AF. 앞으로 SE-88 운영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항공기 도태 엔진이 다 소진되게 된다면, 다른 종류의 도태 엔진이나 새로운 증기 발생 장치를 고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증기 발생 장치와 30년간 제작해온 제설차 제작의 노하우가 적절히 조합된다면, 활주로용 대형 제설차뿐만 아니라, 육군의 작전도로 제설을 담당하는 제설차의 고안 등으로 운영 범위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수제작공장 기계공작팀장 손준석 사무관



81창 특수제작공장 회의실에서 손준석 사무관이 부대원들과 함께 SE-88 도면을 보며 작업 지시를 내리고 있다.

AF. SE-88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SE-88은 오케스트라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SE-88 제작은 기계공작팀에서 가장 큰 업무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모든 작업을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기능의 핵심이 되는 항공기 도태 엔진을 재정비하여 사용 가능품으로 만드는 작업은 기관공장에서 담당하고 있고, 금속가공팀이 특수용접이나 열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판금 제작, 도장, 도금 등 다양한 분야 정비팀의 순조롭고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완성되어 진다는 점이 모든 악기들이 조화로워야 비로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내는 오케스트라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AF



공군인의 **인권**지킴이 공군인권나래센터

공군인권나래센터가 개소됐다. 전문적인 인권 업무를 추진하고,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 공군본부 법무실 인권과 조직을 개편하였다. 인권을 존중하는 군 문화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공군인권나래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번 호에서는 공군인권나래센터에서 김영훈 중령(인권정책/교육팀장), 김민정 (임)중령(진)(인권침해구제팀장)을 만나 공군인권나래센터 창설 과정과 임무에 대해 들어보았다.



인권정책/교육팀장
김영훈 중령



인권침해구제팀장
김민정 (임)중령(진)

AF

공군인권
나래센터를
창설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김영훈 - ‘장병 인권보장’은 국가 차원의 중요 관심사안으로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관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이에 우리 군은 기존 인권 업무를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결과 ’20년 1월에 해군이, ’20년 4월에 육군이 각각 인권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공군도 철저한 준비 끝에, ’21년 1월 1일부로 ‘공군인권나래센터’를 창설하였습니다.

김민정 - 먼저, 기존 인권과 임무와 편성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타군과 외부 기관이 인권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공군’이라는 조직 특성에 부합하는 인권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올해 1월 1일부로 기존 정원 8명의 인권과를 인권정책/교육팀과 인권침해구제팀 2개팀으로 나누고, 정원을 13명으로 확충한 ‘공군인권나래센터’를 창설하였습니다.

AF

‘공군인권
나래센터’라는
명칭은 어떻게
지어진거죠?

김영훈 - ‘공군인권나래센터’라는 명칭은 2020년 12월 인터넷 홈페이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장병과 군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전에서 총 612개의 제안이 들어왔고, 법무실 자체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습니다.

김민정 - 정말 다양하고 기발한 의견들이 많이 접수되었는데요. 그 중 기억에 남는 명칭으로 ‘공군인권스마일센터’, ‘인권드림’ 등이 있었네요. ‘공군인권나래센터’에서 ‘나래’는 날개를 부드럽게 이르는 말로, 인권을 향한 우리들의 이상과 꿈에 접근한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공군 장병들의 인권나래센터라는 날개를 달고 비상하여 힘차게 기세를 떨치기를 소망합니다.

AF

공군인권
나래센터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바뀌는 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김민정 - 공군인권나래센터는 센터장 아래 ‘인권정책/교육팀’과 ‘인권침해구제팀’으로 조직이 개편되었고 기존보다 전문인력도 확충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인권과 조직과 비교할 때 인권침해 및 구제 능력 확보에 큰 비중을 실었습니다. 장병들에게 ‘더 많이 더 자주’ 손을 건내기 위해서요. 신규 인원 확충의 대다수는 인권침해구제팀에 해당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군의 인권정책, 인권교육, 인권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법무관들이 장병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

AF
인권정책 /
교육팀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나요.

김영훈 - 인권정책/
교육팀은 공군 내 인
권 정책을 수립하고,
인권 교육을 총괄합
니다. 자세히 말하자
면, 장병과 군무원이
신분에 따라 차별받

고 불합리하게 대우받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공군 규정과 지침 내 인권 침해 요
소가 없는지 분석합니다. 새로운 규정을 제정
할 때에도 개개인의 인권이 보장되었는지 확
인하구요. 또, 장병들이 재밌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
다. 더불어 법무관과 인권 교관들의 교육 역량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AF
인권침해
구제팀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나요?

김민정 - 인권침해구제팀은 공군 장병과 군무원이 겪고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
적인 상담을 실시하며,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공군인권나래센터는 침해된 '인권'에 대해서만 다루는 역할에서 벗어나 상담기능 강화에
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병영 생활에서 발생하는 일 중에 인권과 관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
들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휘관분들도 어떤 지시를 내리거나
지침을 내릴 때 인권과 관련된 문의가 생기면 공군인권나래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상담은 전문 상담 인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전화, 방문, 인터넷/인트라넷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2월부터는 '공군인권
나래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신설하여 평
일 09:00~21:00, 토
요일 09:00~18:00에
공군 장병과 군무원
들의 인권상담을 실
시할 예정입니다.

법무관이 인권 상담을 하고 있다.



공군인권나래센터

AF

앞으로
공군인권
나래센터의
계획은?

김영훈 - 올해 첫 출범한 인권나래센터는 업무 시스템을 확립하고, 공군 전 장병들에게 두루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 장병들이 언제 어디서든 인권과 관련된 문제와 마주하였을 때 ‘공군인권나래센터’를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 내부적으로는 새롭게 확충한 편제에 대한 인원을 조속히 배치하여 업무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군 내 제도와 규정, 지침은 물론, 병영 문화 속 인권까지 보장하겠습니다. 장병과 군무원들이 ‘인권’을 떠올렸을 때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리라고 생각될 때까지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AF

‘공군인권
나래센터’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김영훈 - ‘자전거’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자전거는 처음에 배우기 어렵지만, 한번 타는 법을 터득하면 특별한 기술이나 노력 없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는 빠르진 않지만, 걷는 것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좋은 경치를 즐길 수도 있죠. 뒷자석이 있다면 누군가 함께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공군인들에게는 현재의 공군인권나래센터는 타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 자전거와 같겠지만, 타는 법만 터득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와 인권이라는 즐거움과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AF

장병과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김민정 - 여러분들에게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TV나 뉴스에서 접하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인권을 위해 공군인권나래센터가 탄생했습니다. 공군인권나래센터의 손짓에 어색해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세요.

김영훈 - 또, 인권과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공군인권나래센터는 그 명칭에 어울리게, 인권이라는 날개를 펼치고 여러분들 곁으로 훨훨 날아가겠습니다. AF

평화를 위한 진정한 대비태세의 의미

- ‘한반도 프로세스2.0’, 공군이 주도해야



글쓴이
배상은
뉴스1 외교안보부 기자

지난 14일 밤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다. 북한이 제8차 노동당대회를 기념해 또 한 번 열병식을 진행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이후 불과 3개월 만이다.

북한은 이날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동원하지 않은 대신, 탄두부가 더 크고 길어진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5사(시옷)’을 공개하며 ‘핵 무력 고도화’를 과시했다.

특히 이번 열병식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 탄도미사일 개량형을 비롯하여 대남용으로 추정되는 무기들이 집중 공개됐다.

중장거리 지대지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략무기가 처음 식별됐다. 5축짜리 TEL 차량에 실려 등장한 이 무기는 차량에 사격통제실 출입문으로 추정되는 별도의 공간이 발견돼 타깃 정보를 입력해 발사하는 순항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력 전략무기인 탄도미사일 외에 저공비행이 가능하고, 표적을 우회해 공격할 수 있어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려

운 것이 특징인 순항미사일 개발에도 매진 중인 것으로 보이거나 아직까지 북한의 순항미사일 개발은 많은 부분이 베일에 싸여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사실상 대남용인 ‘전술핵’ 개발을 공개 지시하면서 “1만 5,000km 사정권 안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을 제고해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할 목표가 제시됐다.”며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도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라며 타격 대상을 넓혔다는 점 또한 의미심장하다.

북한이 이미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제정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에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



만 사용할 수 있다.”며 먼저 핵무기를 사용해 다른 핵보유국을 공격하지는 않겠지만, 핵보유국이 핵무기는 물론이고 비핵무기로 북한을 침략하거나 공격해오더라도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는 향후 한반도 정세에 심각한 위협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라는 대과제 달성의 소명을 부여받은 우리 군에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에 따라 2017년 9월 이후 약 3년여 만에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화염과 분노’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무력 사용 가능성이 논의된 상황에서마저 긴장 수위를 높여 대화국면으로 상황을 전환시켰던 점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무력 사용 가능성이 낮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반도 위기가 극대화될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정세는 우리 군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2.0’을 보장하는 강력한 대비태세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적의 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 외에 매와 같은 감시·정찰 능력이 핵심 관건인 만큼 특히 공군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북한 신형 중장거리 순항미사일에 대비한 공군의 요격 및 탐지 능력 강화와 더불어 핵 추진 잠수함 개발과 SLBM 시험발사가 이뤄지는 북한 신포조선소나 원산 북

동부 동해안 일대를 감시할 정찰 능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독자 정찰 위성 부재에 따라 평양 및 지역의 영상 정보는 미국의 정찰자산에 의존해 온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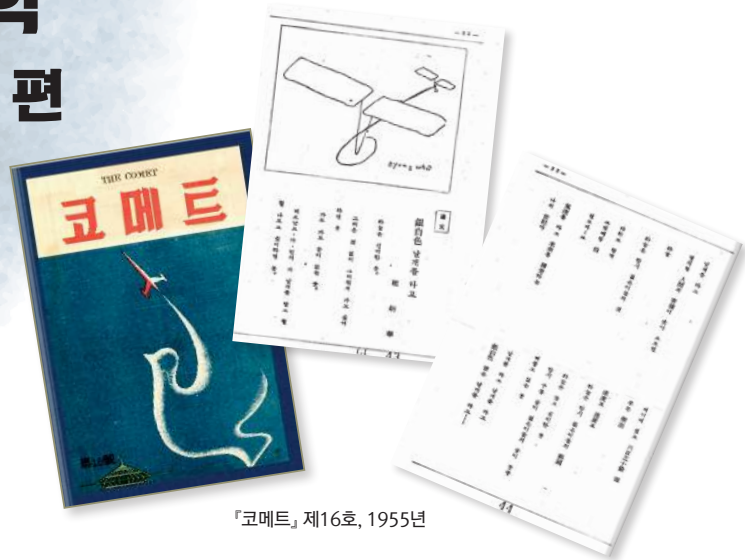
다행히 우리 공군은 그간 ‘한반도 프로세스1.0’을 지탱해오면서도 고고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도입을 통한 최초의 유·무인 감시정찰 비행단 창설 등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왔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북한 내륙의 영상정보를 독자적으로 수집해 지상에서 위성이나 로켓 등 각종 미사일을 탑재하고 이동하는 북한의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움직임까지 추적 감시하는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계획대로 2023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할 경우 우리 군의 대북 감시능력은 더욱 배가될 전망이다.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포함 한반도 일대 24시간 통신·계기 정보를 탐지할 수 있는 공중 신호정보수집체계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다만 아무리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이러한 첨단 전략 자산을 갖춘다 해도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강력한 정신적 대비태세일 것이다. 평화는 절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라는 냉정한 현실 인식과 이에 대한 철통같은 대비만이 한반도를 평화로 이끌어 줄 것이다. 로마의 명장 베제티우스의 말처럼 평화를 위해 또다시 엄중히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공군이 남긴 우리 문학

제12화 조병화(趙炳華) 시인 편



『코메트』 제16호, 1955년

은백색 날개를 타고

하늘은 신비한 곳
그리운 것 없이 그리워서 가고 싶어 하던 곳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곳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날개를 달고
훨훨 날고 싶어 하던 곳

날개를 타고
별처럼 인간의 기적이 솟아오르던 하늘
하늘은 항시 젊은이들의 것

라이트 형제
쓰엣뻬링 백(伯)
린드박

기류를 타고 미래를 활주하는 나의 세기야
세이버 제트 650여리 푸른 영공
속도로 속도로
하늘은 항시 젊은이들의 조국

하늘은 높고 신비한 곳
항시 구름 같이 젊은이들의 꿈이
둥둥 떠돌고 있는 곳
날개를 타고 날개를 타고
은백색 맑은 날개를 타고……

조병화 시인은 1955년부터 공군지와 인연을 맺고 『코메트』, 『미사일』에 여러 편의 시 작품을 발표했다. 시인은 공군지에 산문이 아닌 시만 발표했는데 『코메트』에 한정하여 시 작품의 편수만 헤아린다면 박목월, 박두진의 8편 다음으로 많은 작품(7편)을 수록했다. 그 외에도 『미사일』에 발표한 시 3편까지 포함하면 조병화가 공군지에 발표한 작품은 모두 10편이나 된다. 한 시인이 특정 지면에 발표한 작품임을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편수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가 공군지에 발표한 시는 「은백색 날개를 타고」(『코메트』 제16호, 1955년), 「여마기행(驢馬記行)」(『코메트』 제17호, 1955년), 「고도 7천 피트의 여심」(『코메트』 제27호, 1957년), 「극동상공」(『코메트』 제31호, 1957년), 「금문도」(『코메트』 제32호, 1958년), 「가을」(『코메트』 제36호, 1959년), 「파리」(『코메트』 제44호, 1960년), 「런던」(『미사일』 제2호, 1961년), 「창공무한」(『미사일』 제12호, 1962년), 「1963년 그 하늘에서」(『미사일』 제21호, 1963년)이다. 놀라운 점은 이 중에서 무려 3편의 시가 조병화 시집 및 전집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이라는 것이다. 잘 보존된 공군지를 통해 후대인들은 조병화 시인의 새로운 작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가을

언젠가 철없이 흘리던 나의 땀
한 방울은
지금은 빈 열매가 되어
나무 가지 가지에 주렁주렁
하늘 텅 빈 기슭에 매달리고

언젠가 철없이 흘리던 나의 눈물
한 방울은
지금은 빈 열매가 되어
마음 구석구석 적적한 한 곳
시간의 언저리
인기척 없는 기슭에
……뚝뚝 떨어진다

가을이여
위대한 지속이여

나무와 수목들은 모다
시인의 애인처럼 깊은 생각에 잠겨
제 자리 자리
어제를 지니고
기름기 없는 마음의 몸차림

나는 묵은 물고기처럼
나에 젖어
세월에 깊은 그늘을 찾아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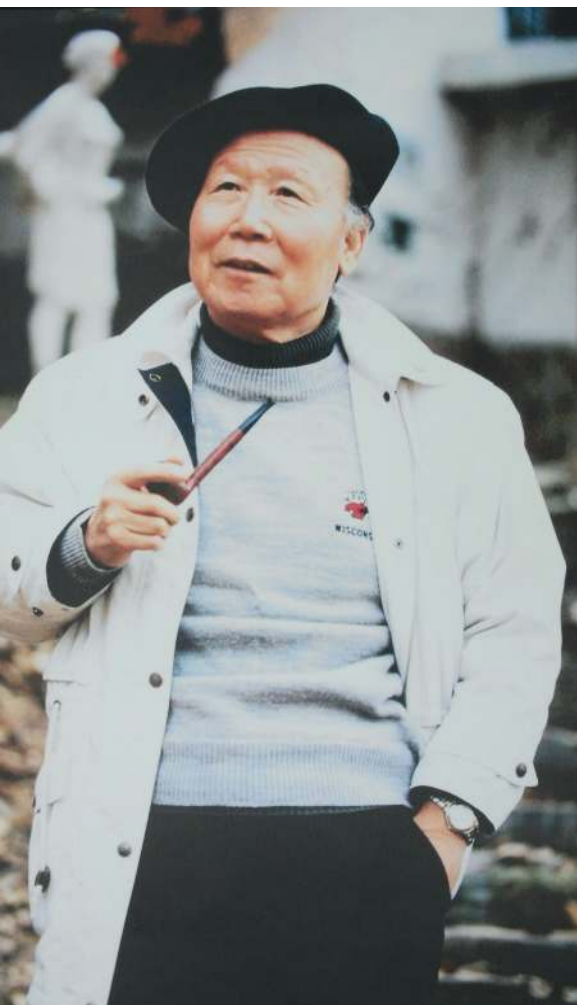


『코메트』 제36호, 1959년

가을이여
동양의 불교처럼
너무나 허망한 나의 신앙이여

언젠가 철없이 흘리던 나의 땀
한 방울은
지금은 빈 열매가 되어
나무 가지 가지에 주렁주렁
하늘 텅 빈 기슭에 매달리고

언젠가 철없이 흘리던 나의 눈물
한 방울은
지금은 빈 열매가 되어
마음 구석구석 적적한 한 곳
시간의 언저리
인기척 없는 기슭에
……뚝뚝 떨어진다



조병화 시인, 경기도 안성 조병화 문학관의 편운재 앞에서



조병화 시인의 첫 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 표지.
1949년 7월 출판사 산호장에서 간행함.

조병화(趙炳華) 시인(1921-2003)의 호는 편운(片雲)이며 경기도 안성에서 출생했다. 유년기에 서울로 이사하여 학교를 다니다가 경성사범학교(서울대학교 사범대 전신)에 입학하였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고등사범학교를 다니던 중 1945년 조국으로 귀환했다. 한국에서 교사 생활을 하던 중 조병화는 시인 김기림을 만나게 되는데 김기림은 그의 시를 보고는 큰 시인이 될 것이라고 독려했다고 한다. 문학에 뜻을 둔 조병화 시인은 당시 장만영 시인이 운영하던 산호장이라는 출판사에서 첫 시집을 내게 된다. 그래서 탄생한 첫 시집이 1949년의 『버리고 싶은 유산』이다. 이후 조병화는 총 53권의 시집을 상재하며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자리잡게 된다.

“지금 어드메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웁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겠어요.

먼 옛날 어느 분이
내게 물려주듯이”(〈의자〉 일부)

조병화라는 이름이나 편운이라는 그의 호를 몰라도 이 시는 어디선가 봤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교과서에도 실렸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종종 인용되는 이 작품 역시 조병화 시인의 시이다. 유명시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시인 조병화는 다재다능이라는 말이 무척 잘 어울리는 인물이기도 하다. 우선, 우리나라 역대 시인 중에서 가장 많은 시집을 발간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조병화 시인이 떠오를 정도로 그는 다작의 시인이다. 시집뿐만 아니라 산문 등을 모두 합치면 조병화 시인이 펴낸 책은 모두 160여 권에 이른다고 한다. 한 명의 시인이 53편의 시를 쓰기도 쉽지 않을 텐데 시집 53권과 책 160권이니. 이 수치를 보면 조병화 시인의 부지런함과 열정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조병화 시인의 특별함은 방대한 창작력에만 있지 않다. 그는 공부 면에서 뛰어난 수재였으며 물리화학을 전공한 이학도여서 문학과 이학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또한 개인 작품전을 열기도 했을 정도로 미술에 재능을 보인 화가였으며 널리 사랑받은 수필가였다. 한 사람이 일평생 했다고 보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업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대학 부총장, 시인협회 회장, 예술원 회장도 역임하는 등 사회적 활동도 왕성했다.



1957년 대한 럭비축구협회 이사 시절 사진

조병화 시인의 이력 중에서 가장 이색적인 것은 그가 대단한 스포츠맨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그가 가장 사랑한 스포츠는 럭비였다. 조병화 시인은 경성 사범학교를 다닐 때부터 럭비 선수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후 럭비에 대한 대단한 애정과 자부심을 이어갔다. 일본에 유학 갔을 때에도 럭비 선수 활동을 계속했으며 조국의 대표로 뽑히기도 했다. 해방 이후에는 대한럭비협회를 창설하는데 힘을 보탰고 대학교수로 재직할 때에도 럭비부를 만들어 감독을 맡았다고 한다. 럭비에 대한 헌신을 쓰거나 인생을 럭비에 비유하는 예찬을 펼칠 정도로 스포츠에 대한 그의 애정은 대단했다.

시인의 화려한 이력을 정리하고 다시 문학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조병화 시인의 시세계란 우리

네 실제 인생과 조화로움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조병화 시인의 작품은 추상적인 관념보다는 구체적인 대상과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된 이유는 창작의 근본이 실제 우리의 삶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조병화 시인은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 접하는 사건의 의미들을 스쳐 지나가게 두지 않고 바로바로 포착해 시로 만드는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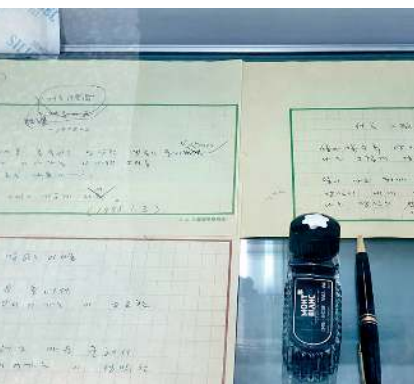
조병화 시인의 생애가 삶에 대한 열정과 긍정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그의 작품들에도 인생을 아름답게 사색한 결과물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조병화 시인의 작품을 읽다 보면 삶은 희망차게 살아볼 만하다는 긍정 에너지를 넘겨받게 된다. 작품 세계가 삶과 어우러진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현 스타일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 그의 특징이다. 시인의 작품을 읽다 보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흐름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어렵고 현학적이기보다는 교양 있으면서도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선택했다. 이런 특징들로 인해 조병화 시인의 시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요약하자면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인생의 면모를 균형잡히고 건강한 시선으로 포착한다는 점, 시의 표현이 우아하면서도 어렵지 않다는 점. 이런 특징 때문인지 지금도 많은 독자 대중이 조병화의 작품을 즐겨 읽고 좋아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혜화동 작업실에서



조병화 문학관 외부에 세워져 있는 시인의 청동상



조병화 문학관 육필 전시물과 생전 사용하던 만년필

조병화 시인 특유의 스타일은 공군지에 수록된 그의 작품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공군지와 조병화 시인과의 만남이 의미 있는 것은 여기에 수록한 몇몇 작품이 새롭게 발굴된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가 『코메트』와 『미사일』에 수록한 시는 모두 10편인데 이 중에서 3편이 『조병화 시』 전집 1-6권(조병화문집간행위원회 편, 국학자료원, 2013)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이다. 조병화 시인의 새로운 작품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필자로서는 상당한 것이었다. 이번 공군지 E-book 작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조병화 시인의 작품은 「은백색 날개를 타고」(제16호), 「여마기행」(제17호), 「가을」(제36호)이라는 작품이다. 조병화 시인의 시집이나 전집을 보면 「가을」이라는 동일 제목의 시가 여러 편, 그것도 전체 시기에 고루 발견되는데 이번에 새로 발견된 「가을」과는 내용이 겹치지 않는다.

『코메트』에 수록된 조병화 시인의 작품 중에서 「은백색 날개를 타고」는 공군의 독자들을 고려한 듯한 작품이다. 여기서는 조병화 시인의 특징을 몇 가지 찾을 수 있는데 우선 시인 특유의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기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 조병화 시인의 또 다른 특징인 풍부한 교양의 활용을 찾아볼 수 있다. 조병화 시인은 문화면 문화, 문명사면 문명사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박식함으로 유명한 인사였는데 그의 풍성한 지식은 「라이트 형제」라든가 체플린(Zeppelin) 백작으로 추정되는 ‘쓰엣뻬링 백(伯)’, 그리고 비행사 ‘린드박크’ 등의 용어 활용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조병화 시인은 2003년에 작고했지만 생전에 문단에 남긴 영향은 적지 않다. 그의 많은 작품, 왕성한 활동 등을 통해 문단의 중심이 되었고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던 시인이었다. 그리고 사후에도 편운문학상과 조병화 문학관을 통해 조병화 시인은 여전히 살아 있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 특히 ‘편운문학상’은 상당히 이른 시기인 1990년대 초반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문학상이란 만들기도 힘들지만 유지하기도 매우 힘들다. 편운문학상은 30년 동안 아무런 잡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좋은 시인과 평론가를 뽑아 시상식을 진행해 오고 있다.

문학상은 1년에 한 번 시상식이 열리지만 조병화 문학관은 상시 개방 중이다. 조병화 문학관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종로에 있는 조병화 문학관 서울사무소이고 또 하나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조병화 문학관이다. 종로의 문학관은 생전에 시인이 거주했던 자택 겸 작업실이었는데 여전히 시인의 유족이 그의 유품과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 안성의 문학관은 시인의 고향에 세워진 문학관으로서 입구에서부터 몇 동에 이르는 건물, 시인과 관련된 조각상들까지 고즈넉한 분위기로 새로 조성된 곳이다. 이곳 역시 경기도의 문화홍보부에서 자랑할 만한 지역의 명소가 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조병화 시인의 시를 사랑하고 편운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시인의 유품과 친필 등 잘 보존된 시인의 흔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AF

월간 「공군」 장병 참여코너 공모 안내



월간 「공군」 장병 참여코너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공군인의 편지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편지

응모방법

인트라넷 E-mail 전송
cjhminam1210@af.mil
(대위 최지형)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 (편지) 명시할 것)
(예 : [편지]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양식

- ☐ 바탕체
- ☐ 10pt
- ☐ 줄간격 180%
- ☐ 공백포함 1250자 이내
(수신인 성함, 주소, 연락처 기재)

2 책 읽는 공군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추천 / 소개 / 서평

응모방법

인트라넷 E-mail 전송
cjhminam1210@af.mil
(대위 최지형)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 (서평) 명시할 것)
(예 : [서평]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양식

- ☐ 바탕체
- ☐ 10pt
- ☐ 줄간격 180%
- ☐ 공백포함 1400자 이내

3 마음의 소리

[월간공군] 편집실에
하고 싶은 이야기

응모방법

인터넷 월간 「공군」
E-BOOK 자료관에서 업로드
(www.afzine.co.kr)

(인터넷에서 '공군지' 혹은 '월간공군'
검색 후 '독자 의견' 코너에 게시)

양식

- ☐ 250자 내외
- ☐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필수

공모기간 매월 **10일** 까지

입선헤택 공군인의 편지, 책읽는 공군 지면 게시작 / 1등 - **포상금 5만 원** (개인 계좌 입금) 2등 - **기념품**
[공군인의 편지 당선 시 수신인 주소로 공군지와 기념품 특별 배송]
마음의 소리 게시작 / **기념품** [공군이 내놓은 아이템 - 개별발송]

제22화 제5공중기동비행단 파라업 동아리장, 정보경 상사

LIVE PAGE

내 옆의 공군인 _____

공군이라는 이름으로 지낸
땀과 열정의 시간들
우리들의 영웅
내 옆의 공군인



“생각을 바꾸고 다시 보니 가능했어요”

지금 우리들 주변엔 어떤 물건들이 있나요? 제 주변에는 키보드와 모니터, 마스크랑 볼펜 등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항상 제 옆에 있어서 그런지, 별 생각이 안 듭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호에서 소개할 ‘내 옆의 공군인’은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물을 평범하지 않게 바라본 사람입니다. 항상 임무를 하며 만지던 낙하산줄에 창의력을 더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는 파라업 동아리장 정보경 상사를 소개합니다.

버려지는 낙하산줄 너무나도 아깝다!

저는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파라업 동아리장을 맡고 있는 정보경 상사입니다. 1994년 공군 항공과학고에 입교해 1997년 공군 하사로 5비에 배속된 이후 지금까지 이곳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임무는 공중근무자의 생명인 낙하산을 포장하고 검사하는 일입니다. 사실 파라업 동아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저에게 이렇다고 할 만한 이야깃거리는 없었어요. 항상 해야 할 임무를 하며, 부대 생활 속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 살고 있었죠.

지난 2016년에도 저는 여느 때와 같이 낙하산을 포장하고,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낙하산에 대한 꼼꼼한 품질 검사를 하다보니, 검사에서 탈락한 낙하산과 낙하산줄이 생각보다 많이 버려졌습니다. 낙하산 품질 검사는 공중근무자의 생명과도 직결되기에, 아주 사소한 결함이나 오차가 있더라도 과감히 낙하산을 폐기시켜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문득 낙하산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항상 만져왔고, 꼼꼼히 살펴왔던 낙하산줄이 유난히 달라 보였습니다. 강력한 장력을 지녔으며, 내구성도 훌륭하고, 촉감까지 좋은 낙하산줄이 폐기되는 것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낙하산줄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업무를 마치고 제가 생각해본 것들에 대해 부서원들과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낙하산줄에 매듭공예를 접목시켜 새로운 것을 창조해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파라업 동아리가 탄생하였습니다.

항상 손에 쥐고 있던 낙하산줄이 지금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재료가 되었고, 덕분에 제 삶에 큰 활력이 되었습니다.



스페이스챌린지 대회 때 파라업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장면



낙하산줄로 만든 공예품들



파라업 동아리원들이 낙하산줄로 매듭공예를 하며 웃고 있다.

연애시절 배웠던 매듭공예가 동아리의 시작?

사실 낙하산줄로 매듭공예를 한다는 아이디어는, 제 연애시절에서 나왔습니다. 하하.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지금은 아내가 된 여자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커플 팔찌를 선물하겠다고 이곳 저곳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매듭공예를 접했습니다. 이후로도 이따금 취미활동으로 이어오다, 지금은 낙하산줄로 매듭공예를 하고 있네요.

‘낙하산줄에 새생명’이란 의미 담아

‘파라업’은 낙하산줄(Paracord)과 재활용(Upcycling)이라는 의미를 담아 만든 동아리명입니다. 처음 동아리명을 정할 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는데요. 단순한 재활용이 아닌, 예술성과 실용성을 가미하여 낙하산줄에 새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의미가 와닿아 결정했습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낙하산줄을 활용하여 다양한 용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팔찌, 목걸이, 열쇠고리 등 각종 액세서리와 파우치, 컵받침대, 마스크 스트랩 등 생활용품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새로운 매듭법이나 공예품 제작 아이디어를 얻고 있으며, 욕심이 생겨서인지 관련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라업 동아리는 장병과 군무원 총 3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월 5회 부대 내에서 실시하는 정기 활동과 스페이스챌린지 대회, 사천 에어쇼, ADEX 등 공군 주요 행사에 체험부스로 참가하는 등 대외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 부대 인근 사회복지센터에서 어린이 대상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매듭 공예 교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지난 11월 낙하산줄로 만든 마스크 목걸이 200개를
부대 인근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기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자신감도 얻고, 나눔의 기쁨도 배워

동아리 활동을 통해 무언가를 창조해낸다는 즐거움도 좋은데요.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다보니, 저와 동아리원들 사이에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먼저, 사소하지만 무언가를 계속해서 창조하는 활동을 하니 ‘내가 해냈다’, ‘내가 만든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동아리원들 사이에 퍼지고, 자신감이 쌓였어요. 자신감이 쌓이다 보니 내성적인 친구들도 마음을 열게 되면서 쾌활한 병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됐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제는 부대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겐 파라업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둘째론, 이렇게 만든 제품을 주변에 기부하다 보니,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됐죠. 그전까진 몰랐어요.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된다는 것을.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동아리원들과 모여 ‘이번엔 무엇을 만들어서 기부할까?’, ‘저분들이 필요한 물건을 혹시 우리가 만들 수 있진 않을까?’ 하고 이야기하곤 해요. 또, 이렇다 할 취미가 없는 부대원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내니, 이 점도 좋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동아리원들끼리는 가족처럼 지내곤 합니다.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 드리고파 기부 계획

올해 초 저희 동아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마스크 수급이 어려웠던 지난 4월, 손재주를 발휘해 부대 인근 어려운 이웃들에게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기부하기도 했고, 지난 11월에는 낙하산줄로 마스크 목걸이를 만들어 똑같이 기부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변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계획했던 건데요. 동아리원 모두가 흔쾌히 동참하고 전폭적으로 지지해줘 보다 수월한 기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낙하산줄이 저희들의 손을 만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물건으로 재탄생해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보람찼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제한되다 보니, 각종 재능기부 활동도 잠시 멈추어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곳곳에 낙하산줄을 이용한 매듭공예를 선보여 재미와 유익함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동아리원

어느덧 동아리 활동을 5년째 이어오다 보니 기억에 남는 동아리원도 있는데요. 동아리 창설 초기 저와 함께 했던 병사가 특히 기억나네요.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군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했던 친구인데요. 당시 대대 주임원사를 겸직하고 있던 저는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파라업 동아리를 소개했고, 흔쾌히 동아리에 가입한다고 하여 함께 동아리 활동을 했었죠. 쭉쭉 동아리방에 들어와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던 그 친구에게 간단한 매듭법부터, 액세서리를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나니, 어느샌가 여러 작품들을 만들고 있더라구요. 그 친구도 평소에 모르고 지냈던 자신의 손재주와 인내력을 발견하게 됐고, 저희들은 이를 발전시켜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동아리 활동에 내성적인 성격은 점차 사교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했고, 결국 활짝 웃는 얼굴로 전역했습니다. 아직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네요.

군 생활 다짐과 앞으로의 계획

속담 중에 마행처 우역거(馬行處 牛亦去)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소보다 걸음이 빠르지만 소도 쉬지 않고 걸으면 말이 가는 만큼 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제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성실함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남들보다 느릴 수 있겠지만, 꾸준히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임무를 수행하면서, 시간이 되는데로 낙하산줄로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기부 활동도 계속하고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접해본 전통 매듭공예 기법을 저희 파라업 동아리에도 적용시켜 다양한 전통공예품에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저는 젊다고 생각되고, 못해본 일이 많다고 느껴지기에 끊임없이 나아가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끝으로, 코로나19로 많은 국민과 장병 여러분이 힘들어하시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시는 국민과 의료진, 국군장병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우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두 파이팅! 



파라업 동아리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군을 즐기는 스마트한 방법!

공군 SNS 주요콘텐츠 안내

에어본

Airborne



오직 공군에서만 볼 수 있는 항공촬영 콘텐츠

공대리



공군 대위 LEE가 쉽게 풀어주는 공군 이야기

필승공식



한주간의 공군 소식을 요약해주는 60초 뉴스

100인의 공군



공군의 다양한 보직을 소개하는 미니다큐멘터리

에어리스트

Airlist



Airmen + speaciallist, 공군의 전문가들을 소개합니다.



유튜브
대한민국공군
youtube.com/rokafplay



페이스북
대한민국공군
facebook.com/rokairforce



인스타그램
대한민국공군
instagram.com/rokaf_official



티스토리 블로그
공군 공감
afplay.kr

우 리 부 대 는



창공의 눈, 평화의 중심! PEACE EYE!

제51항공통제비행전대

항공통제기 E-737을 운용하여 한국 항공작전지역에서 공중감시, 무기통제, 전장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제51항공통제비행전대를 소개한다.

부대 마크의 의미

- 방패 : 철통같은 영공방위태세
- 독수리 : 완벽한 조기경보 및 지휘통제로서 조국의 영공을 지키는 51전대
- 독수리 눈 : 평화를 수호하는 Peace Eye의 날카로운 눈
- 항공기 : E-737 통제대상이 되는 모든 항공전력
- 감시망 : 최상의 공중감시 및 조기경보 체계
- 연·진 청색 : 24시간 수호해야 할 주·야 조국 영공

부 대 연 혁

- 1980. 04. 최초 소요제기(JSOP)
- 2010. 03. 창설준비대 운영
- 2010. 10. 제51항공통제비행전대 창설
- 2011. 09. E-737 1호기 인수
- 2011. 12. E-737 2호기 인수
- 2012. 05. E-737 3호기 인수
- 2012. 10. E-737 4호기 인수
- 2013. 07. 예속변경(작전사령부 → 방공관제사령부)
- 2016. 01. 예속변경(방공관제사령부 → 공중기동정찰사령부)



E-737 신년비행



부대 창설 및 전대장 취임식

51전대의 시작과 비전

하늘의 지휘소 E-737을 운용하는 51전대는 적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탐지/식별하여 전장 주도권 확보 및 피해 최소화를 도모한다. 51전대는 2010년 창설 이후 국군의 날 기념 유공, 비행안전 최우수 전대 등 다수의 부대 표창을 수상하였을 만큼 단기간의 성장을 발판으로 공군의 핵심부대로 자리잡고 있다. 나아가, 인천 아시안게임, 평창 동계올림픽 등에서 경호임무를 수행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 드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복지시설 봉사활동, 동물보호센터 봉사활동 등 지역상생 및 대민 지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격납고에 주기되어 있는 E-737



비행 브리핑 중인 조종사들

평화 수호를 위한 비상

271대대는 창설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비행안전 사고도 허용하지 않았을 만큼 뛰어난 실력의 조종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임무 특성상 밤낮 구분없이 비행하여 공중감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최대 4명의 조종사들이 탑승하여 교대로 7시간이 넘는 장시간의 비행을 해야한다. 불규칙적인 생활 속 피로감을 느낄 수 있지만 271대대 조종사들은 완벽한 팀워크와 함께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눈이 되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한다는 사명감으로 이를 극복한다.



시뮬레이터실에서 훈련 중인 항공통제사들

공중에서의 탐지·식별

항공통제사는 E-737에 탑승하여 공중감시, 무기통제 임무 등을 수행한다. 전원 장교로 구성된 조종사와 달리 항공통제사는 신분이 장교와 부사관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은 지상 1,2MCRC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51전대의 공중 근무는 항공통제사들에게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이다. 또한 최대 10명까지 탑승한 좁은 곳에서 다수의 인원이 밀집해 장시간 근무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시간 모니터링과 정보수집·가공으로 지상의 아군과 정보를 속전속결로 주고받으며 얻는 성취감은 피로감까지 잠재운다.



항공기를 정비하는 정비대대 장병들

안전을 위한 항공기 정비

정비대대는 항공기의 하드웨어와 엔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주 기장, 격납고 등에서 항공기가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유지한다. 비행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정비대대는 이륙 2시간 전부터 항공기 상태를 점검하여 비행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착륙 후 항공기가 격납고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확인한다. 51전대는 적은 수의 항공기를 장시간 운용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고충이 있지만 정비대대원들은 대처보단 예방이 생명이란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요소들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체계실에서 전자장비를 점검하는 임무전산체계대 장병들

임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

정비대대가 항공기의 하드웨어를 담당한다면 임무전산체계대는 소프트웨어를 책임진다. E-737 항공기가 타 항공기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내부에 여러 가지 전자 장비들을 탑재하여 수집되는 정보들을 아군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점이다. E-737 항공기에는 레이더를 포함한 각종 체계들이 탑재되어 있으며, 임무전산체계대는 이러한 체계의 시스템적인 부분을 지원하여 항공통제사들이 임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한 치의 오차도 임무 수행의 성공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임무전산체계대원들은 언제나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리한다. **AF**





20전비, 장병 눈사람 콘테스트

1월 10일(일) 제20전투비행단 병사 자율위원회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속적인 제설작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눈사람 콘테스트'를 열었다.



신년맞이 대전현충원 참배

참모총장은 1월 4일(월) 새해를 맞아 공군본부 참모들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 참배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예공군'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대비태세 현장지도



참모총장은 1월 6일(수)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제8681부대 등 3개 부대를 찾아 혹한 속에서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과 군무원을 격려하고, 기지 경계작전 현장을 점검하였다.

공군본부 및 직할부대 새해 업무보고



참모총장은 1월 12일(화) 항공우주전투발전단, 전력지원체계사업단 등 공군본부 직할부대를 찾아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과 군무원을 격려하고, 2021년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제1전투비행단

제설 대민지원

제1전투비행단 장병들이 1월 8일(금) 광주지역 강설에 따라 광주 공항 삼거리를 포함한 부대 인근 도로에 대한 제설 작업을 실시하였다.



제3훈련비행단

신년맞이 위령비 참배

제3훈련비행단 지휘관·참모들은 1월 4일(월) 신축년을 맞이하여 부대 내 위령비를 찾아 참배를 실시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였다.



제5공중기동비행단

특수임무대 대테러 전술 집중훈련

제5공중기동비행단 소속 특수임무대 요원은 1월 4일(월)부터 8일(금)까지 대테러 특공대 최신 전술 습득과 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대테러 전술 집중훈련을 실시하였다.



제10전투비행단

제설작전

제10전투비행단은 18일(월) 원활한 항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소형 SE-88을 운용하여 유도로를 제설하고 있다.



제11전투비행단

항공기 소방구조훈련

제11전투비행단은 1월 13일(수) 기지 내 소방훈련장에서 항공기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소방구조요원들의 임무 역량 강화 및 작전 절차 숙달을 위한 항공기 소방구조 훈련을 실시하였다.



제16전투비행단

LIFT과정 첫 단독비행

LIFT(전술입문)과정 첫 단독비행을 앞둔 제16전투비행단에서 소속 훈련조종사가 기체를 점검하고 있다. AF

시인의 책



우리는 새벽까지
말이 서성이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제주도 출신, 김작(Kim Zak)의 시

자카리아 무함마드(Zakaria Mohammad)는 1950년 팔레스타인의 나블루스에서 태어났다.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아랍권 전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서양에도 자주 소개될 만큼 빼어난 시인이다. 또한 ‘마흐무드 다르위시 상’의 수상자이기도 하다. 이 상은 인류의 문화 창달 기여도를 감안해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내는데 2020년엔 미국의 사상가 노암 촘스키와 모로코의 시인이자 번역가인 압텔라디프 라비가 자카리아와 공동 수상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는 시인임과 동시에 저널리스트이자 소설가이기도 하고 화가이자 조각가이며 사상가다. 그의 시집이 한국과 인연을 맺은 지 17년 만에 출간됐다는 기사를 본 순간, 지체하지 않고 주문했다. 그리고 혼자 일독하고 말기엔 너무 아까워 두어 편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말의 중요성에 관한 시.

바위에 새겨진 짧은 글귀, 아마도 창끝으로 새겨졌을 글귀는 이렇다: “기다려, 내가 갈 테니, 도망치지 마, 나는 야쉬쿨이다.”/야쉬쿨이 상대를 따라잡았는지 나는 모르겠다./그러나 그의 예리하고 무서운 전언이 바위 위에서 여전히 번뜩이고 있음은 알겠다. 이천 년도 넘게, 마치 칼날처럼./ 이는 말이 절대로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됨을 알리기 위함이다. - 시 「각석」

그는 시를 쓰기 시작했을 때, 시와 자신과의 관계가 결코 간단치 않았음을 시집 말미에 수록된 산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시에 내가 무엇을 더할 것인가?”이고, 두 번째는 “사회와의 관련성”이었노라 고백한다.

- 어떻게 하면 기존의 아름다운 시보다 더 잘 쓸 수 있을까?
- 어떻게 써야 영향력이 있을까?

둘 다 자신 없는 일이었기에 심한 좌절감에 시달려야 했으며, 불확실한 시의 열매를 잡고 싶은 지나친 염원으로 ‘차라리 시를 쓰느니 토마토를 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몇 달 후엔 열매를 볼 수 있고, 과즙을 맛볼 수 있으니 시보다야 낫

지 않겠어?’라는 투로 혼잣말을 읊조리기까지 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토마토 재배와 시 가운데 시의 길을 선택한 덕에 오늘 우리는 그가 써낸 시의 세례를 만끽할 수 있으니 독자 입장에서 보자면 감사한 노릇이다. 그렇다면 빨간 토마토를 먹는 기분으로 짧은 시 한 편 더 나누기로 하자. 상큼한 과육이 입안에서 툭툭 터져 입술 밖으로 흘러내리게끔, 통째로 말이다. 이번엔 사랑에 관한 아포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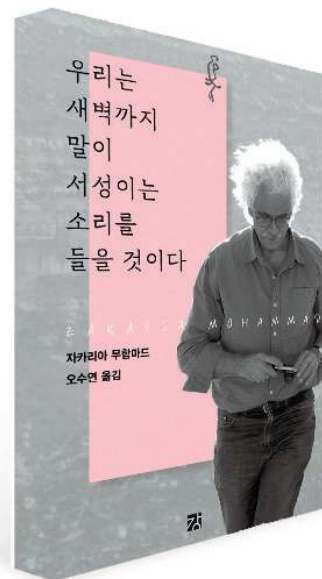
사랑은 정말로 한 마리 개미/ 막대기에 붙어 있고/ 막대기는 한 아이의 손에 들려 있고/ 아이는 막대기를 까딱거리고/ 개미는 손에 다가갈 가능성이 없고/ - 시「개미」

자카리아는 필자가 국경과 성별과 나이를 초월해 좋아하는 시인이자 존경하는 인물이다. 그와는 2004년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 주관한 ‘아시아 젊은 작가와의 만남’에서 처음 만났는데 서울, 광주, 부산, 경주, 제주에서 진행된 평화와 연대에 대한 심포지엄에 동행하면서 친밀해졌다. 그는 강연과 시낭독을 통해 모국 팔레스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진정성 있게 전달했으며, 전쟁국가에서의 시인의 소임에 대해 시종일관 부드럽고 담담하게 들려줬다. 그의 문장과 발언은 놀랍게도 하나하나가 노래이자 기도이자 시였는데 일테면 다음과 같다.

“나는 거리에서 탱크를 보지 않은 날이 없어. 하지만 더 이상 탱크와 전쟁을 노래하고 싶지 않아. 이제 장미를 노래하고 싶어. 전쟁국에 살지만 전쟁을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어. 전쟁에 대해 생각하려 하면 또 다른 전쟁이 발생하거든. 늘 그래왔어. 전쟁은 나와 우리 민족의 현실이야. 전쟁을 선택할 것인가 장미를 선택할 것인가의 차이에서 나는 늘 갈등해. 그렇지만 그것은 곧 하나야.”

이렇듯 탱크와 포성으로 점철된 열사의 땅에 살면서도 영혼엔 드넓은 장미 화원을 가꾸며 살아가는 그로 인해 전

쟁국가에서 왔으니 당연히 전투적이고 비애적일 거란 사고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편견인지 단 사흘간의 동행으로 깨닫게 됐다. 이후로 다시 내한한 그와 한 번 더 해후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도저한 사유와 심오한 지성을 묻고 귀 기울이기엔 안타깝게도 나의 영어는 짧아도 너무 짧아 접는 수밖에 없었으니 이 노릇을 어이하랴. 그로부터 17년, 그의 시집이 나온 것이다. 이는 한국과 오랜 동안 연대를 맺어온 한 시인에 대한 존경과 우정의 선물이며, 팔레스타인에서 은발 휘날리며 한국에 당도한 평화의 사절에 다름 아니다. 제한된 지면인지라 많은 시를 언급하지 못해 아쉽지만 스스로를 “제주도 출신, 김작(Kim Zak)”이라 소개하는 유쾌하고 온화한 눈빛의 아랍 시인이 서점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서운해 하지만 말고 직접 만나보시길. 



글쓴이

2001년 『사람의 문학』을 통해 작품 활동 시작. 시집으로 『기차를 놓치다』와 『꿈결에 시를 베다』가 있으며, 산문집 『그대라는 문장』이 있다. 제주도 책방카페 <시인의 집> 대표.

명상을
말하다



화 다스리기

우리 마음에는 하루에도 수 천명의 방문객들이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매일 수 천개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속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생각들은 우리에게 좋거나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에서 화 또는 분노의 생각은 우리 마음과 몸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경험으로 잘 알고 있지요.

만약 우리가 화나는 생각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해로운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생각, 그중에서도 화나는 생각을 마음챙겨 알아차리는 훈련은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키우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아차리고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났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으로써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화나는 마음의 강력한 힘이 조금 약해지게 되고,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지요.

“화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화나는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키워지면 그 힘이 바로 자신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마음의 문 앞에서 지키고 있던 마음챙김이라는 감시견이, 초대받지 않은 화의 생각이 찾아왔을 때 크게 짖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차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명상을 통한 화 다스리기는 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화를 억누르거나 화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며, 화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화 자체를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면 화의 마음이 가라앉는 걸 발견하고 여러분은 놀라게 됩니다. 계속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고대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철학자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

두 인생이라는 축제에 초대받았는데, 누군가는 그곳에서 축제를 즐기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이름과 명성을 날리고자 한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는 축제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본다. 그 사람이 바로 철학자이다.” 명상을 하는 사람은 화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단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화의 마음은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나쁜 생각들을 자세히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뒤엎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쌓아가면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화의 생각은 힘을 잃어 나에 대한 영향을 덜 주게 됩니다.

“화와 욕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화의 마음과 욕심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화는 왜 일어날까요? 바라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일어납니다. 바라는 바가 없는데 화날 일이 있을까요?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십시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분명히 화가 많고, 화가 많은 사람은 분명히 욕심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충족되지 않을 때 비로소 화가 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욕심은 나에게로 끌어오려는 마음이고 화는 나로부터 밀어내려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에게로 끌어오려는 마음과 나로부터 밀어내려는 마음은 그 방향만 반대일 뿐, 기본 작동방식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뒤집은 화이고, 화는 뒤집은 욕심”

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욕심과 화를 함께 ‘갈애(craving)’라고 부르고, 화에 대한 명상을 할 때에는 화의 마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마음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국 화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욕심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욕심을 다스린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위에서 말한 내용을 토대로 화와 욕심에 대한 명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① 의자나 바닥에 앉아서 눈과 입을 지그시 다물고 척추를 바로 세운 다음 심호흡을 여러 번 하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합니다. 충분히 이완될 때까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마음으로 이완하고, 또 이완합니다.
- ②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 나의 주의를 가만히 마음 속으로 돌려 지켜봅니다. 마음 안에는 미세하지만 욕심의 마음 또는 화의 마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좀더 편안해지고 싶은 욕심일 수도 있고, 불편한 내 몸의 자세에 대한 거부감일 수도 있습니다.
- ③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그 세기가 강하든 약하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이나 화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켜봅니다. 욕심 또는 화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 ④ 그동안 알지 못하고 있던 욕심이나 화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바라봅니다. 욕심 또는 화의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 ⑤ 이렇게 적어도 10분 이상 충분히 마음을 바라본 후 심호흡을 3번 하고 서서히 깨어납니다. **AF**



글쓴이

검사 출신 변호사. 약 30년 전 마음챙김 명상을 만나 업무와 대인관계에 큰 도움을 받았다. 10년 전부터 신세계 아카데미, 삼성 레포트 문화센터, 인터넷 방송 등에서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철학, 군인 정신을 말하다



데이비드 브룩스의 군인정신

“거듭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인간이란 불가사의”

“우리는 자신에게 정말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눈 앞의 쾌락에만 매달린다. 자신의 의지조차 실천 못하는, 자기를 엉망으로 만드는 짓을 그토록 많이 하는 인간이란 얼마나 불가사의한 존재인가?”

서양 중세의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430)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 마음 안에는 스스로도 어찌지 못할 악하고 게으른 마음이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샷된 욕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크고 강한 누군가가 자신을 붙잡아주기를 원하곤 한다. 비싼 돈을 들여 관리 엄하다는 학원에 등록하고, 스파르타식으로 관리해준다는 헬스장 광고에 마음 끌리는 이유다.

군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의 심정도 다르지 않을 터다. 낯선 세계로 들어간다는 불안감의 한 편에는 묘한 기대감이 피어나곤 한다. 그대도 엄한 군 생활을 통해 나약해진 자신의 의지력을 가다듬고 고삐 풀린 일상을 다잡을 성실성을 기르겠다는 각오를 새기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전사가 된 당신은 지금 입대 전 소망대로 바뀌었는가? 군대는 당신을 견실하고 규율 잡힌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가?

“IALAC에서 벗어나라!”

이 물음에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면, 미국의 칼럼리스트 데이비드 브룩스(David Brooks, 1961~)의 말에 귀 기울여 보라. 그에 따르면, 현대는 ‘IALAC’이 대세가 된 시대다. ‘IALAC’이란 “I am Lovable And Capable.(나는 사랑스러우며 뭐든지 할 수 있다.)”의 줄임말이다. 한마디로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의미다.

개인주의에서는 나의 성장과 발전,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은 할 수 있다.’며 북돋아주는 목소리 역시 끊이지 않는다. 때문에 스트레스도 적지 않다. 소중하게 대해주고 할 수 있다며 격려까지 해주었는데도 실패했다 해보자. 이는 누구 탓일까?

책임은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개인주의는 늘 힘겨운 경쟁의 연속이다. 나도 존엄하고 상대도 소중하며, 모두가 존귀하다. 그렇다면 이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 나은 대접을 누릴지는 어떻게 가를까? ‘능력’이 가장 공정한 잣대가 될 터다. 모두가 잘나고 귀한 사람들인데, 그 밖의 조건으로 우열을 가리려 하다가는 사단이 날지도 모른다. 누구도 결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까닭이다. 그래서 IALAC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언제나 경쟁이 치열하다. 끊임없이 자기를 계발하고 노력하여 남들보다 나아야 한다는 조바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처지에서 스스로의 낙관함과 의지박약을 탓하는 젊은이라면 군대가 구원의 목소리처럼 다가올지도 모른다. 군대에서 경쟁 사회에 꼭 필요한 근면성실함과 강한 의지를 기를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거듭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데이비드 브룩스의 논리를 곰곰이 따져보면, 이는 어긋난 기대일 뿐이다. 군대와 개인주의는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는다. 군대는 ‘복종’을 훈련하는 곳이지, ‘자기 ভাল’을 키워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일까?

브룩스는 이렇게 충고한다. 각테일파티에서 누가 가장 인기 많을까?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끊임없이 자랑하는 자들일까? 그럴 리 없다.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들어주며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이들 주변에 모이는 법이다.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상대가 원하는 바를 먼저 챙겨라. 나아가, 모두를 이롭게 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서라.” 어느 시대에도 바람직한 사회생활의 제1덕목으로 꼽히는 가르침이다. 군대야 말로 이런 가치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몸에 배게 하는 곳 아니던가?



글쓴이

철학박사.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철학 역사를 만나다』, 『우리가 매혹된 사상들』 등 20여 권의 책을 낸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대중 인문학자이다.

“도덕적 환경은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특정 종류의 사람이 되도록 유도한다. 자기가 처한 사회의 도덕적 환경과 일치하면 사람들은 그에게 호의를 보이고, 그런 방식으로 계속 행동할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 - 데이비드 브룩스 지음, 『두 번째 산』 중에서

“감성을 가르쳐주고, 특정 가치를 장려하고,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 알려주는 문화적 전통에서 힘을 얻어야 한다.” - 데이비드 브룩스 지음, 『인간의 품격』 중에서

이 구절들을 곱씹어 보라. 군대는 나를 어떤 사람이 되도록 이끌고 있는가? 어떻게 처신할 때 상급자와 전우들이 나를 칭찬하던가? 내가 잘되기 위해서보다, 전체에게 도움이 되도록 성실 근면해야 하는 곳이 군대다. 군인은 승리를 위해 필요한 바를 살피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할 때 인정받는다.

브룩스는 ‘자신의 선택을 거듭 선택하는 도덕적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제 전사가 된 그대 자신에게 톱 톱이 되물어보라. “군대는 내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가?” 부대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런 물음도 필요하겠다. “우리 부대에서 잘 생활한다면 장병들은 어떤 인격을 갖추게 될까?”

희생과 헌신은 개인주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묘약이다. 군대는 이를 필요로 할뿐더러, 끊임없이 장병들의 가슴에 새겨주곤 한다. 전체에 대한 배려와 정당한 복종을 익힌 정신에는 IALAC이 지배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실함과 치열함이 있다. 이기적으로, 편하게 살고픈 마음은 본능에 가깝다. 이를 이겨내는 길은 자신이 바라야 하는 모습을 되새기며 끊임없이 다시 선택하는 데 있다. 전사인 그대는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을 일이다. AF

TREND

트 렌 드 가 보 인 다

쿠바, 사라져가는 아날로그의 추억이 남은 곳



쿠바 아바나 올드타운에서 흔히 보이는 올드카

시간이 흘러가면 과거의 것들을 대하는 관점도 변한다. 매년 불어 왔던 레트로(Retro, 복고) 열풍은 과거에 대한 향수가 핵심이다. 기성 시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순한 과거의 재현이다. 하지만 1020 세대에서 새롭게 불어오기 시작한 뉴트로(New + Retro) 열풍은 다르다. 그들에게 복고는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기에 완전한 새것이다. 새로운 세대는 기성세대의 추억을 재해석해서 그들의 것으로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디지털 세상에서 다시 주목받는 아날로그

지금처럼 세상이 온통 디지털화 되기 이전, 삶은 놀랍도록 느리고 불편했다. 지하철에는 선반마다 그날의 신문이 주인 없이 놓여 있었고, 자동차 보조석 서랍에는 ‘전국 관광지도’나 ‘한국 정밀지도’가 필수적으로 들어있었다.

그러나 요즘, 굳이 아날로그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아날로그는 불편함을 만들지만, 사람은 불편함 속에서 추억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는 ‘나는 쓸모 있는 존재’라는 인간적 효용을 느끼고 싶어하는 본능과도 연결된다. 아날로그 제품은 대부분 사람의 동력이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어도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디지털 제품과는 다르다. 다시 말해, 아날로그 제품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과 공로를 나누게 되고, 사람은 자신이 일조한 노력의 대가로 보람과 만족을 얻는다. 새로운 세대 역시 아날로그에 디지털로는 얻을 수 없는 특유의 감

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LP판과 턴테이블을 비롯해 커피 그라인더, 필름 카메라 등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어쩌면 이제 기성세대의 전유물이었던 아날로그를 물려줄 시점이 온 것인지도 모른다. 한 세대의 추억은 다음 세대의 새로운 추억이 되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다. 아날로그는 생활필수품에서 기호품, 취미용품으로 변해가고 있다.

막을 내린 아날로그 세상, 그러나 쿠바

이렇게 아날로그는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아날로그가 전부였던 세상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밀레니엄 시대 이전에 태어난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마지막 남은 아날로그 인간이 되었다.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이미 디지털 방식에 익숙해진 지금에 와서 다시 그때처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은 힘든 것에만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에도 적응하는 것이므로. 그러니 어린 시절을 마지막 아날로그 세대에서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큰 행운이었다.

혹여 아날로그 세상에 미련이 남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쿠바에 가보기를 권한다. 쿠바는 비록 완벽한 방식은 아니지만, 인터넷과 휴대폰이 없던 시절 우리네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떠올리게 해준다. 이제는 기억하려야 흐릿하게밖에 남아있지 않은.

언젠가 쿠바에 있던 날이 떠오른다. 나는 식당 테이블에 앉아 주방으로 이어져 있는 통로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숙소에서 만난 커플과 일몰을 보러 가기로 약속한 상황이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음식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아무래도 커플에게 상황을 설명하

고 돌아와서 천천히 식사하는 게 낫겠다 싶었다. 나는 승호라는 친구와 함께,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커플에게 말을 전하러 가기로 했다.

“먼저 가세요.”

한마디, 고작 이 짧은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뛰기 시작했다. 쿠바는 지정된 공간에서 인터넷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통신이 거의 불가능한 나라이다. 많은 국민이 휴대전화는커녕 집 전화도 없이 살아간다.

한참을 뛰어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때쯤 마침내 광장에 도착했다. 약속 시각은 한참 지나 있었다. 승호와 나는 좌우로 나뉘어, 영문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을 커플을 찾아다녔다. 거대한 조형물 앞에서 있는 커플을 먼저 발견한 건 나였다.

뒤돌아보니 멀리 승호가 보였다. 승호는 고가도로 넘어 다른 공원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계속해서 이름을 불렀지만, 다리에서 넘어오는 차들의 소음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두 손바닥을 동글게 말아 입에다 가져다 대고 온 힘을 다해 이름을 외쳤다.

“승호! 승호야!”

승호는 다섯 번쯤 이름을 부르자 그제야 뒤돌아보았다. 다만, 근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함께.

식사를 마치고 그곳이 일몰을 보러 걸어가면서, 슬쩍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본 게 얼마만이지?’ 분명 최근의 기억 중에는 없다. 언제부턴가 직접 소리 내어 외치는 것보다, 자판의 느낌표를 여러 번 누르는 것에 더 익숙해졌다. 숨을 한껏 들이쉬었다가 누군가의 이름을 내뱉고, 얼굴이 벌게져 헉헉대면서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음을 느낀 기억은, 아득히 옛날의 것이었다. AF



글쓴이

공군병 711기. 군 전역 후, 전 세계 80개 나라를 여행하고 돌아와 전업 작가 생활을 시작했다.
주로 여행에 관련된 수필을 쓴다.

공군인의 편지

글 | 일병 김요한(제15특수임무비행단 수송대대)

아빠, 오늘은 저랑 저녁 먹어요

아빠, 옛날 어디선가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남자가 된다.”라는 말을 들었던 때. 저는 그 말을 들곤 얼마 동안 앓으며 피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군대를 다녀와 조금은 성숙해진 친구들을 보면서 그 말을 떠올리며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지금 군대에 있으면서 비로소 저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은 깨달았어요.

막연히 ‘이제는 어엿한 남자로 완성되어 오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시작한 군 생활. 받기만 하던 지난 어린 모습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독립적인 멋진 아들이 되자고 속으로 외쳤지만, 그 외침은 결코 쉽게 입에 담을 수 있는 가벼운 말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시간을 보내며 아빠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돼요.

매일 군대에서 주어진 일과를 해내며 진로를 고민하고, 공부하고, 처음으로 봉급을 받으며 재정적으로 독립도 계획해 보면서, 내 한 몸 책임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무엇보다, ‘책임진다’는 말의 무게를 많이 실감해요. 훗날 저도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둔 가장이 될 텐데, 감히 그 무게를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느껴지네요. 그러면서 지난 세월,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묵묵히 달려와 주

신, 그리고 아직도 달리고 계신 아빠를 생각하니 참 감사하면서도 존경스러워요.

옛날 아빠가 저에게 “나이가 들수록 슈퍼맨이던 아빠가 점점 더 작아질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빠 저는요, 여전히 아빠가 참 대단해요. 여전히 아빠의 어깨가, 그 품이 너무 든든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아빠, 저도 조금은 더 책임감 있는 아들이,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 과정이 조금은 부담스럽고 두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피하지 않으려고요. 마땅히 마주해야 할 현실이 있다면, 그 현실과 삶에 힘껏 몸을 던져보려고요. 그런데 아빠, 당신의 아들은, 잘 해낼 것 같아요. 그리고 해낼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잠깐 돌이켜 본 당신의 아들은 든든한 남자로 서 있을 거예요. 아빠의 그 사랑과 헌신을 받고 자란 만큼 그 귀중한 삶이 바래지지 않도록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볼게요. 아빠, 조만간 휴가 나가면 같이 저녁 먹어요. 오랜만에 얼굴 뵙고 싶네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아버지. 

**가족, 애인, 친구, 동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래 양식에 맞춰 보내주세요.**

편지 수신인에게 월간 「공군」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바탕 / 10pt / 줄간격 180% / 공백 포함 1,25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 접수방법 : E-mail 전송 (인터넷 : cjhminam1210@af.mil, 인터넷 : afzine@korea.kr)
※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편지]) 명시 (예 : [편지]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책읽는 공간

글 | 일병 강민재(제5공중기동비행단 항공정비전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너, 나 그리고 우리

글을 쓰기에 앞서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저로서는 선뜻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돈으로 살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돈의 한계를 자각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그동안 돈에 의해 잊혀진 전통적인 가치들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물질적 가치보다 중시되던 공동체적 가치가 돈에 의해 잠식당하는 세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일례로 ‘야구장’을 소개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야구장은 관중석마다 비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야구경기를 후원하는 회사에 큰 영향을 받아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신분과 상관없이 다같이 경기를 응원하던 응원문화가 점점 퇴색하였고 야구장이 물질적인 색깔을 띠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야구장에서는 더 이상 연대감 같은 공동체적 가치관을 볼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이윤이 우선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후원회사와 야구관계자들의 이러한 행보는 좋은 전략이라 볼 수 있지만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저자는 물질적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가치들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이러한 지적은 그동안 물질주의에 찌들었던 사회에 작지 않은 충격을 주었고 예전의 감정들을 떠올리게 해주는 소위 ‘레트로(RETRO)’를 강조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현대의 대표적인 사상이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를 담은 책입니다. 몇몇은 샌델이 주장한 공동체주의를 지역주의나 연고주의가 갖는 폐해와 동일시하여 오해가 생긴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샌델이 책에서 주장한 공동체주의는 미국의 독립시기에 형성되었던 ‘공화주의적 전통’을 말합니다. 시민들이 모여 문제들을 고민하고 토론하며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및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급격한 사회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도덕적 가치는 퇴색하였고 시장 논리만 남아있습니다. 국가의 부가 늘어나면 국민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근거없는 믿음이 경제로부터 ‘도덕적 가치’를 배제시켰습니다. 그 결과 현대 사회는 편리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히려 불편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장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확립해나가야만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시장 논리로 뒤덮힌 사회를 타파할 수 있는 키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끝맺고자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마이클 샌델 지음

와이즈베리 펴냄

생각하는 그림

글 | 소위 강성관(정신전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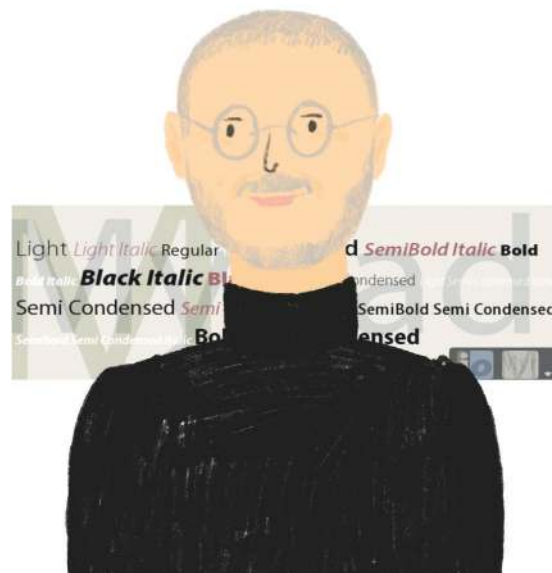
그림 | 강은정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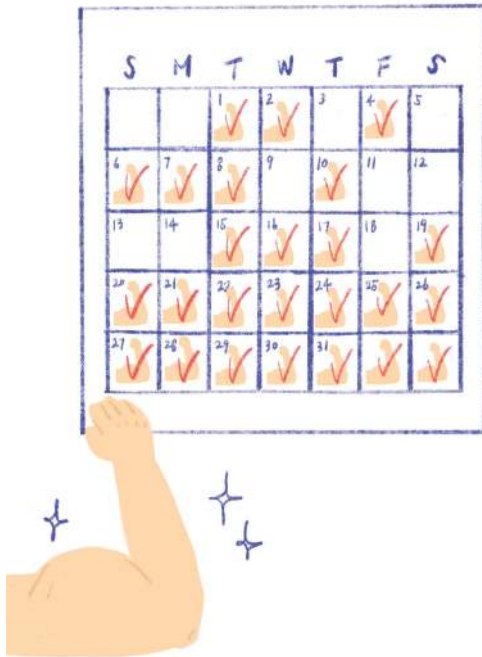
하나의 점



얼마 전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하나의 실험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원의 지름을 끝에서 끝으로 오가는 점을 보여줍니다. 똑같이 지름과 점을 2개, 3개로 늘려도 점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불규칙해 보입니다. 하지만 선분과 점이 무수히 많아지면 점들이 또 다른 하나의 원을 만들어 큰 원의 둘레를 따라 이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의미해 보였던 점들이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움직이는 것이죠. 장동선 박사는 이 실험을 우리 인생에 비유합니다. 움직이는 하나의 점은 우리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과 같으며 점들이 만들어 낸 패턴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와 같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지만 멀리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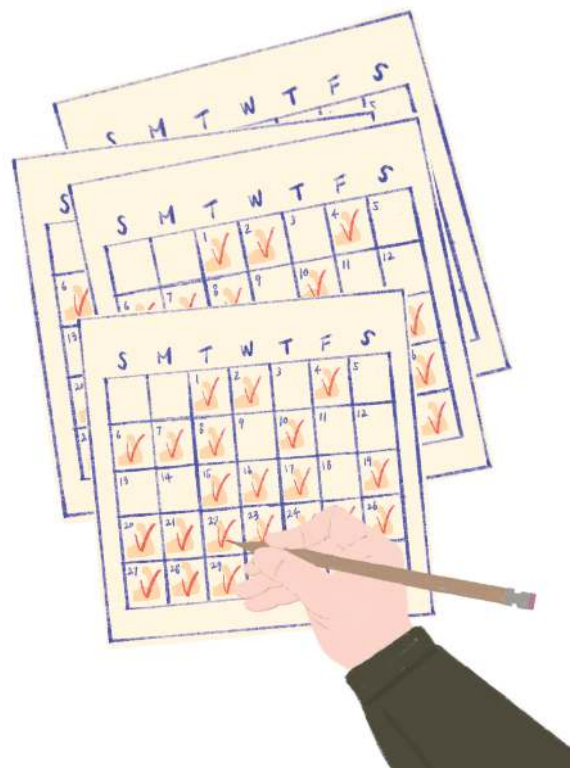
이렇게 인생의 ‘점(Dots)’에 관해 말한 사람은 장동선 박사만이 아닙니다. 애플의 창업자이자 스마트폰의 아버지인 스티브 잡스는 미국 스탠퍼드대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서체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서체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매킨토시의 아름다운 서체는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연관성이 없어 보였던 일들도 뒤돌아 보면 서로 연결돼 ‘지금의 나’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점’이 미래로 연결된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두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작은 실천들이 거대한 결과를 낳는 사례들은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 당장 근력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앞에 섰을 때 ‘몸짱’이 되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 순간의 경험은 보잘것없는 단 하나의 ‘점’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모이고 모이다 보면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인생의 차이’가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벌써 2월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점을 만들어 움직여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계획했던 모습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것처럼 그것들이 ‘헛된 일’은 아닙니다. 서체 수업을 포함해 스티브 잡스의 경험 하나하나가 애플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어 낸 것처럼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인생의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공군인 여러분! 단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낼 미래의 모양을 기대하며 자신있게 우리의 ‘점’을 움직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F



기준의 기준

글 | 중위 윤기준(정신전력과)

‘가족’의 맹목성

일일연속극에 자주 등장하는 클리셰가 있다. 바로 ‘알고 보니 가족이었다’는 포맷이다. 많은 드라마에서 연인관계, 양숙관계였던 두 인물이 서로 가족임을 확인하고 관계 전환의 국면을 맞는다. 시청자들은 막장이라고 지적하다가도 ‘그래 가족이면 그럴 수 있지.’라며 고개를 끄덕이곤 한다.

이처럼 드라마 작가들이 ‘알고 보니 가족’ 포맷을 자주 활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편리하기 때문이다. 손쉽게 드라마 인물관계를 다채롭게 만들 수 있다. 일일연속극은 오래 진행되다 보면 단조로워지기 마련이다. 새로운 인물이 출연하지 않는 한 관계도 지루해진다. 그렇다고 뜬금없이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결국 기존 인물 사이에서 관계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게 바로 ‘가족’이다.

모든 대중문화가 대중을 설득하는 과정이고 드라마도 시청자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새로운 인물을 추가하거나, 인물 간 관계를 바꿀 때는 충분한 설득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말에는 설득이 필요 없다. 어떤 맥락도 뛰어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가족의 재구성’은 시청자를 설득시켜야 하는 고난의 길을 피하고 쉽게 드라마를 재구성하는 ‘꼼수’와 같다. 뜬금없이 새로운 가족이 등장하는 일일연속극이 ‘막장’이라고 치부되는 이유기도 하다. ‘막장’이라는 말 뜻 그대로 막다른 곳에 몰린 작가가 선택하는 관성적 선택인 것이다.

이렇게 ‘혈연’이라는 말처럼 피로 맺어진 관계는 어떤 관계보다 우선시 되고 가장 본질적이지만 그만큼 맹목적이기도 하다. 시청자가 판단할 눈을 가려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맹목성은 폭력성과 닮았다. ‘막장’ 드라마가 자극적인 이유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장 드라마를 욕하면서도 끊지 못하나 보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맹목적인 건 사실 꼭 드라마만의 얘기는 아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를 확인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명절이다. 명절은 과도한 관심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합리화되는 시기다. “취업 안 할 거니?” “결혼은 언제 하니?” 등의 질문들이 화살이 되어 날아온다. 이런 가족의 맹목적이고 과도한 관심도 폭력과 같다. 실제로 작년 한 구인구직 포털이 직장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혼 57%가 어른들 잔소리가 부담스러워 명절포비아를 느낀다고 대답했다.

곧 설날이다. 명절은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그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다. 가족은 분명 중요하지만 ‘가족이니까 괜찮아.’ 한 마디로 모든 게 합리화되는 관계는 적절하지 않다. 가족의 의미가 내 불합리한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적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가족이니까’라는 생각을 버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월간 『공군』 2020년 8월호(506호) 기획특집 「임도현 비행사의 발자취를 따라서」에 대한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 공훈발굴과의 의견입니다.

• 임도현 비행사는 동료들과 함께 일본의 비행기를 몰고 상해로 갔는가?

일제 정보문서 『요시찰인관계잡찬 要視察人關係雜纂』 「용의선인유시퇴거처분에 관한 건 容疑鮮人諭示退去處分에 관한 件」(재상해총영사대리 在上海總領事代理 : 1934. 5. 1)에서 임도현 선생은 비행기술 연습비 마련차 입치환(笠置丸)이라는 배를 타고 중국 절강성 소흥으로 가던 도중 상해에 기항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임도현 선생이 직접 일제의 비행기를 몰고 상해로 갔다는 내용은 자료상 확인되지 않고, 상해행도 독립운동과 무관합니다.

• 임도현 선생의 ‘자필이력서’는 독립운동 입증자료인가?

유족은 임도현 선생의 ‘자필이력서’가 임도현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단서”라고 주장하나, 전문번역업체에 의뢰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2010. 5. 12) “내용상 두 세 단어 정도만 의미 파악이 가능하며, 의미 없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여 있는 단순 메모”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독립운동 관련 내용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일제는 임도현 선생을 ‘감시대상자’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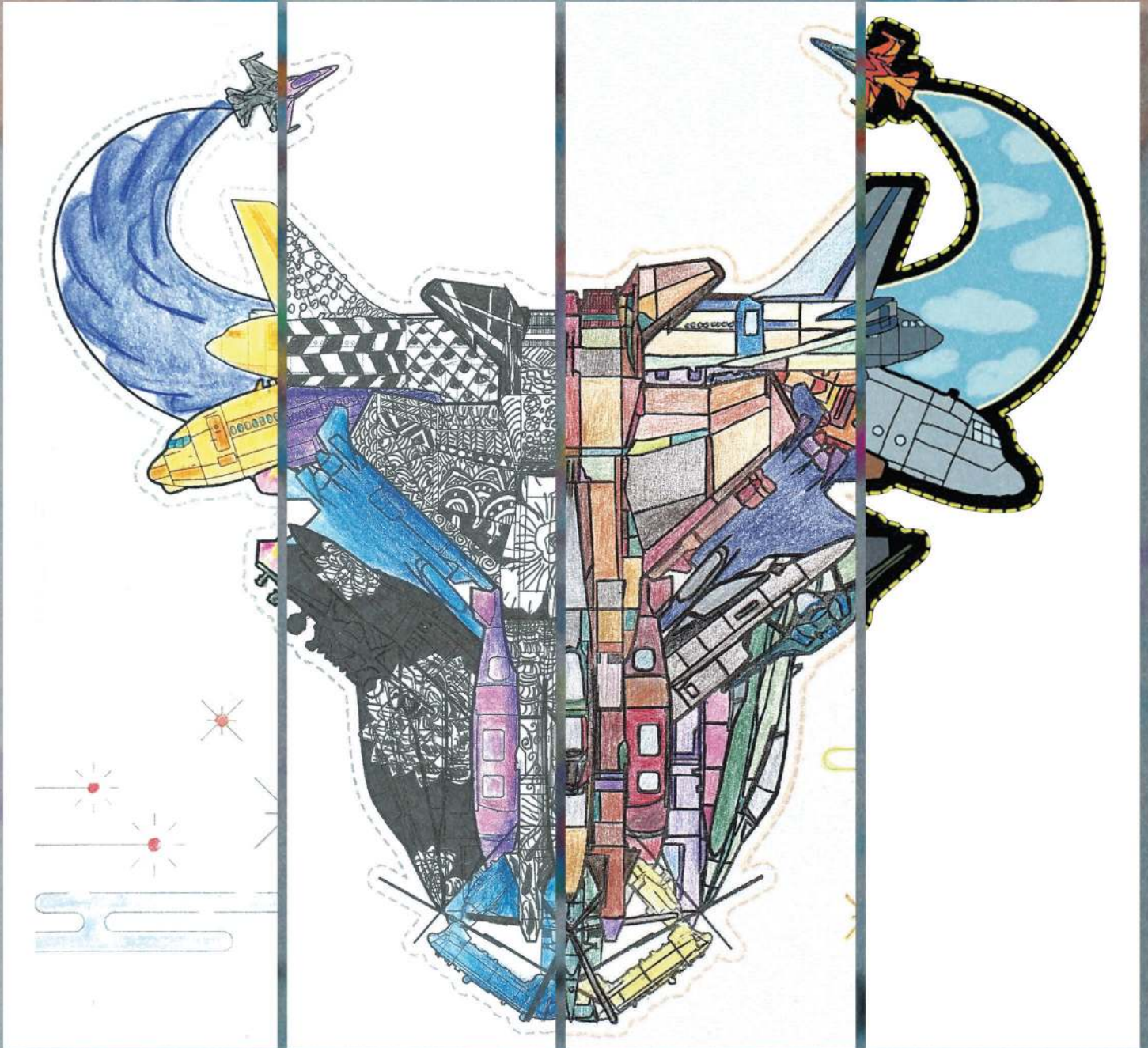
『판결문』(光州地方法院 濟州支廳 : 1936. 5. 4)에는 임도현 선생이 “1931년 중 입천(立川) 비행 학교 재학 중 학자금 500원의 차용을 수 차례에 걸쳐 요청하였다. 그러나 임동규가 들어주지 않아 비행술 술업(術業)을 중지하고 중국 상해로 갔다가 동지 주재 (일본) 영사관에 의해 송환 당해 1934년 12월 중 귀향한 자이다”라고 합니다. 이외 『판결문』에는 임도현 선생이 일제의 ‘감시대상’ 혹은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중국 인터넷 사이트의 사진속 비행사는 임도현 선생인가?

지면에 소개된 『廣西航空學校技術科全體機械士合影』(촬영시기 미상)에는 사진에 수록된 인물들의 성명이나 출신 등에 대한 구체적 인적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의 증언만으로 사진속 인물을 임도현 선생이라 특정한다거나, 사진의 존재 자체가 임도현 선생의 독립운동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컬러링 이벤트 당첨자 안내

<컬러링 이벤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작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월간『공군』 선물을 보내드리오니, 편집실에서
발송한 메일을 확인하시고 회신 부탁드립니다.



당첨자 안내

김건우님 강은경님 박민지님 박정은님 장안정님 장혜영님
조나라님 조대연님 조슬기님 최지희님 김지영님 이유송님
이애경님 Bori00**님 kiunchan11**님 lovemyth**님

마음의 소리

나윤찬

a350n**@naver.com

안녕하세요. 공군지를 구독한지 딱 1년 된 중학생입니다. 2살 때부터 집이 공항 근처라 대한민국 공군의 수송기를 보고 자랐습니다. 4학년이 되고 본격적으로 공군사관학교 입학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항공 관련 지식을 쌓으려고 이곳 저곳을 찾다 5학년 12월에 공군지를 발견했습니다. 무려라서 바로 신청했네요. 2020년 1월부터 들뜬 마음으로 공군지를 받기 시작해 어느덧 1년이 지나고 다시 1월이 되었네요.

1년 동안 공군지를 받아보면서 항상 기대하고 가장 좋았던 부분이 표지였습니다. 멋진 사진과 예쁜 일러스트로 항상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 공군지는 저에게 스트레스 해소를 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스트레스가 항상 쌓이는데 공군사관학교를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공군지도 저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알찬 내용과 멋진 표지를 제작해주시는 공군지 제작자분들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이수복

egi**@hanmail.net

항상 월간 『공군』을 애독하는 예비역 공군인입니다. 코로나19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신축년 새해가 왔습니다. 올해도 공군이 대한민국 영공을 든직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근 인상깊게 본 코너는 군중병 소개편이었습니다. 읽으면서 제 군 생활 종교참석 활동이 생각났습니다. 종교활동 하면서 주는 간식을 먹고 찬송대회에 참석했던 추억이 있네요. 지금 코로나로 공군 장병들이 힘든 시기인데 종교활동으로 마음의 안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월간공군이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하길 독자로서 응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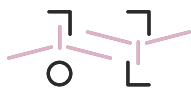
조한석

chohans10**@naver.com

새해 첫 시작을 힘차게 깨우는 신년호 월간 『공군』을 반갑게 잘 읽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제게는 에어리스트 칼럼의 '제8전투비행단 군중병' 편이 가장 기억에 남는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장병들의 종교활동을 지원하는 군중병들의 생생한 활약상을 보고 있노라니 나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코로나 블루로 지쳐있을 장병들의 마음을 신앙의 힘으로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실 기사 속 군중병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엽서로 보내주시던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E-Book 자료관(www.afzine.co.kr)
〈독자 의견〉코너에 올려주세요.

(매월 10일까지 / 250자 내외 / 주소, 연락처 기재 필수)



5 1 2